

영화등급 항의 서한

안녕하십니까? 저희 단체 '제주4·3사건 재정립 시민연대'는 지난 해 '잔혹했던 1948년 탐라의 봄'이란 영화를 기획·제작해 극장에서 상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영화' 인정 심의 과정에서 납득이 안가는 결과를 통보 받아 독립영화 심의 하는 심사위원들이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지고, 본인들의 생각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면 배척하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어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세금을 투입해 특정 영화를 선정, 제작비를 지원하고, 독립영화 전용관에서 상영이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독립영화 분류 심사를 합니다.

저희가 만든 작품은 본심과 재심을 통해 심사인원 전원 불인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첫 심의 후 메일로 '독립영화 불인정' 결과 통보 받은 메일에 독립영화로 인정 되려면 다음 사항에 해당되어야 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제7조(독립영화 인정 기준) ① 이윤 확보를 1차 목적으로 하는 상업영화의 투자, 제작, 배급 방식으로부터 탈피한 영화로서,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업영화가 다루지 않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쟁점과 인물을 깊이 있게 다룬 영화
2. 편견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표현으로 차별화된 경험을 전달하는 영화
3.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고 대안적 의제를 제기하는 영화

아무리 봐도 저희 영화는 위 사항 모두에 해당되는데 왜 불인정이 되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주 4.3의 정의는 '공산주의자들로 구성된 남로당이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한 제헌의원 선거를 막기 위해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의가 '양민을 학살한 군, 경에 의한 국가폭력'이라고 변질되었습니다. 군, 경에 의한 잘못이면 그때 진압하지 말고, 공산화되도록 놔둬야 했다는 것입니까?

억울한 양민의 희생은 물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산주의자들이 게릴라전을

한다면서 양민들 틈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군복을 입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양민이랑 같은 복장을 하고 양민들 틈에 숨어 있는데 무슨 수로 군, 경이 그 사람들을 다 정확히 분류합니까? 당시 제주도에 남로당원 수가 6만여명 정도였다는 사실은 무고한 양민이라고 주장하는 상당수가 남로당에 부역한 자들이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군, 경이 일부 분간할 수 없어 양민을 죽인 정황은 분명히 있었지만, 이마저도 양민들이 뻔히 피해당할 줄 알면서도 비겁하게 양민들을 인간방패 삼은 좌익 공산주의자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 작품들과 달리 그 당시 남로당 좌익에 의해 가족을 잃은 많은 유가족들을 인터뷰해 작품에 넣었으며, 심지어 남로당 좌익 지역 우두머리의 자손도 수소문해 인터뷰했습니다. 제주도경찰 서장 인터뷰는 물론, 강원대학 법학교수, 건국대학 역사학교수 등 그 분야 전문가들도 인터뷰해서 담았는데 다큐멘터리 영화의 기본적인 해석과 설득의 노력이 안 보인다고 하면 납득이 안갑니다.

현재 좌편향적인 해석으로 정부와 군, 경의 잘못이라는 내용으로 만든 많은 영화, 영상 및 방송물들이 있는데 그들의 주장과 똑같이 만들었어야 다큐멘터리 영화의 기본적인 해석과 설득의 노력을 보였다고 판단되는 겁니까?

‘제주 4·3이 정부, 군, 경의 잘못으로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한 사건이다’란 식으로 만든 작품들은 왜 세금으로 제작비 지원도 받고, ‘독립영화’로 자동 분류되어 독립영화 극장 상영도 수월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무수한 근거를 대고 반대주장을 하면 마치 객관성이 떨어지는 양 독립영화 분류에서 조차 불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 공정한 심의기준에 의한 판단이 아닌, 심사위원들의 정치적 시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인정을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좌편향 시점으로만 작품을 만들라고 부추기는 것 같아 심사위원들의 자격과 공정성, 아울러 작품의 독립영화 심의 공정성 여부를 다시 검증해 주십시오.

2023. 1. 2.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